일본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추진 사례

ㅇ 일본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세제 면에서 혜택을 제공, 중간에서 경쟁자와의 통합을 조절해 주는 등 장점이 있음

ㅇ 한편 관(官)에 의한 일본기업 간의 산업재편에 대하여 해외 판로 개척이나 시장에 의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

□ 가속하는 관 주도의 구조조정

ㅇ 아베 정부는 '13.6월에 제시한 성장전략 제1탄에서 향후 5년간을 「긴급 구조개혁 기간」으로 간주하여 산업의 신진대사 향상을 주장

- 최근 일본 산업계의 재편이 활발한 배경으로서는 (1)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 극복, (2)「성숙기」에 돌입한 산업, (3)IT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가 등

ㅇ 경산성은 공급과잉 시정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, '13.12.4일에 법안이 성립되고 '14.1.20일에 시행

-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특정사업재편계획이 인정되고 합병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재편촉진세제에 의해 ①출·융자액의 70%를 손금산입 할 수 있고, ②등록면허세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- 또한 공급과잉구조로 인해 기업수익이 감소하고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「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」에 의해 현황을 조사, 관(官) 주도로 사업통합이나 설비집약을 촉진시키도록 지도

ㅇ 구(舊) 산업재생법(현 산업경쟁력강화법)에 따라 설립된 관민 출자 투자펀드인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(産業革新機構)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최대 2조 엔까지 투자 가능

< 국내 재편으로 탄생한 기업 >

재팬디스플레이	히타치제작소, 소니, 도시바의 중소형 액정 사업을 통합(산업혁신기구 35.58% 출자)
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	히타치, 미쓰비시전기, NEC의 반도체 사업을 통합(산업혁신기구 69.16% 출자)
JOLED	소니와 파나소닉의 유기EL 패널 사업을 통합
소시오넥스트	파나소닉, 후지쓰의 시스템 LSI 사업을 통합
유니커리어 홀딩스	히타치건기와 닛산자동차의 포크리프트 사업을 통합 ⇒ '16.3월에 미쓰비시중공업 산하로
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	히타치와 미쓰비시중공업의 화력발전 시스템 사업을 통합
재팬마린 유나이티드	JFE홀딩스와 IHI가 산하의 조선 자회사를 통합

- 산업혁신기구의 시가 회장은 2016년을 「산업재편원년」으로 삼고 개별 기업의 사업을 타사와의 재편을 통해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방침

- 기구는 2024년에 해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M&A 파트너를 찾는 출구전략을 추진, 해외 벤처기업과 일본기업과의 합병 등도 계획 중

□ 성공 사례: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

○ '14.2.1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화력발전 사업을 통합시킨 「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」를 설립
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'12.7월부터 화력발전소의 인프라 사업 통합에 관한 협상을 진행, '13.6월 통합에 관한 계약을 체결

  * 출자률 : 미쓰비시중공업 65%, 히타치제작소 35%

○ 사업통합의 배경에는 '11.3월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원전 정지로 주요고객인 일본국내 전력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축소

- 한편 신흥국의 경제·산업의 성장으로 세계에서는 전력 수요가 증가, 특히 석탄이나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잠재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, 이 시장은 미국의 GE나 독일의 지멘스 등이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통합에 의한 코스트 삭감으로 대응할 필요

- 미쓰비시중공업은 제품으로는 고효율 대형기종, 지역으로서는 동남아나 중동에서 강하고 히타치제작소는 중소형기종과 유럽, 아프리카 등에 강하기 때문에 사업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의 구축과 광범한 글로벌 전개가 가능

○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의 설립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첫 인정 사례

- '14.1.30 경산성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재편계획을 인정하여 양사는 사업 통합을 위한 자본금의 증가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, 사업재편촉진세제 등의 혜택을 받았음

□ 실패 사례: 샤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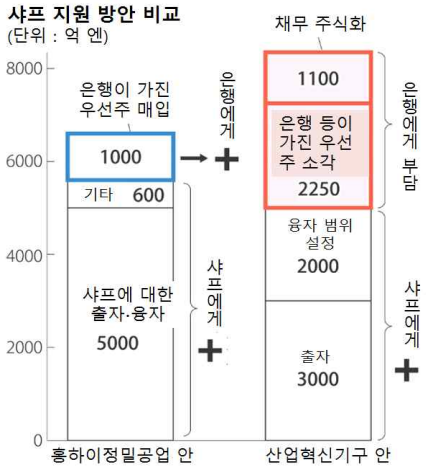
○ 샤프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홍하이정밀공업과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경쟁해 왔지만 '16.2.25일 샤프는 홍하이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

- 산업혁신기구는 일본국내 기업 간의 과당경쟁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, 기구가 출자하는 중소형 액정패널 대기업의 재팬디스플레이와 샤프의 액정사업을 통합 방안과 샤프와 도시바의 백색가전 사업 통합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 왔지만 실패

○ 샤프는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 풍부한 자금력과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진 홍하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

- 샤프 경영진의 일부에서는 과거에 제휴 협상이 실패하면서 홍하이에 대한 불신감으로 산업혁신기구의 방안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, 투자 총액 등 전체적 조건으로 대부분의 경영진과 은행이 홍하이 방안의 채택을 주장

-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의 지원으로 재건을 추진하는 사례 중에 1999년의 르노가 닛산자동차에 대해 출자 등 약 6,430억 엔의 자본제휴가 있음



자료: 마이니치신문(2016.2.26.)

○ 홍하이는 '16.8.11일 중국당국에서 샤프에 대한 출자방안의 승인을 받아 익일 12일에 샤프 인수를 완료, 13일에는 샤프의 신임 사장으로 타이정우 홍하이 겸 폭스콘 부회장이 취임

□ 시사점

○ 경쟁자와의 통합을 주저하는 민간기업 사이에서 일본정부의 펀드나 지원정책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효과가 기대됨

- 한편 관(官) 주도의 산업재편은 일본기업 간의 통합을 우선시하나 외국계 자본을 회피하고 있으며, 세금을 민간기업 구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등 비판도 많음

- 산업혁신기구의 주도로 재편되어 '14.3월에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재팬디스플레이는 산업재편의 모델케이스로 기대되었지만 공모가격(900엔)을 하회하는 등 고전을 겪고 있음

○ 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과잉공급이나 각 기업의 연구개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산업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좋지만, 재편 후의 비전 구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추진될 필요

- 우리나라도 원샷법을 비롯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어 있는데, 산업을 향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신속하게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

<참고자료>

동양경제온라인(2012.12.10, 2016.2.15), 닛케이비즈니스(2016.6.27), 닛케이테크노로지온라인(2013.6.11), 미즈호은행 산업조사 Vol.42(2013.5.24), 아사히신문(2016.1.7), 마이니치신문(2016.2.26), 산케이신문(2016.2.26/27/28)